

# 김현미 “전주역사 타당성 조사 재검토”

### 정동영 의원, “타당성 조사, 목적·방향성 틀렸다… 천만 관광객 만족시키기 위해 신축에 속도 내야” 촉구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 덕진)은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의 관문, 전주역은 너무나 협소하다”며 전주역 신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전주역은 2011년 이용객 135만명에서 2014년 230만명, 2016년 267만명으로 연 평균 14.0%의 이용객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KTX 승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35년 된 전주역은 전국 KTX 주요 정차역 중 가장 비좁고 낙후되어 관광객이 물리는 기간 혼잡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동영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부터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동영 의원의 줄기찬 노력 덕분에 국토부 차관과 철도공사 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전주역을 방문했고 시설현황을 점검한 후 전주역사 시설개선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1월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로 전주역사 시설개선 규모, 규모별 타당성, 사업비 분담 방안 등 종합적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동영 의원은 “전주역사 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 연세대학교가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분석(B/C)은 사업목적과 합의내용에 관한 방향성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주역사 관련 타당성 조사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촉구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방향, 내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참고로 전주역은 2016년 CNN과 세계 최고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의 여행출판사 론니 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3대 여행명소로 선정되었으며, 전주 한옥마을과 정갈한 한식, 남부시장 야시장이 국내외 여행객에 주목을 받으며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다. 실제로 전주는 지난 추석연휴 3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전주역은 승객 1인당 면적이 전국 주요 KTX 정차역 중 가장 낮았으며, 시설 노후도 역시 KTX 정차역 57개 중 53위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전주가 천만 관광시대를 연 만큼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와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전주역사 신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270억 지원에도 분만취약지 관내분만을 매년 감소

산부인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7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운영비 등 지원)에 2013년 40억 원, 2014년 49억 원, 2015년 55억 원, 2016년 57억6,000만 원, 2017년 68억5,000만 원 등 최근 5년간 국비 270억1,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2013년 29.7%, 2014년 29.6%, 2015년 25.5%, 2016년 25.3%, 2017년 6월 기준 24.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7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13곳의 분만 산부인과 중 고흥종합병원(8.5%), 태백함미음산부인과(9.8%), 고창종합병원(11.8%), 영주기독병원(15.8%), 영동병원(15.8%), 서귀포의료원(16.9%), 예천권병원(19.3%) 등 총 7곳은 관내분만율이 20% 미만인 실정이다.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별 관내분만율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의 경우 2017년 6월 기준 지역 내 전체 150건의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분만건수는 114건으로 76.0%의 관내분만율을 보인 반면, 고흥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지역 내 129건의 전체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의 분만건수는 11건(8.5%)에 그쳤다.

김광수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산모들의 관내분만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분만의료 취약지역 거주 산모들의 분만을 위한 원거리 이동·대도시 원정 출산이 지속·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복지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신뢰도가 낮고, 사업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내분만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분만의료 지원 확대, 분만 환경 개선 등 분만장려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김관영, 군산푸른솔초 특별교실 특교 15억 확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5억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산푸른솔초등학교는 개교 당시 28학급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는 34학급으로 증가해 기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각 교과별 특색에 맞는 수업 진행과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실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증축에 필요한 자체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김관영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15억을 확보하여 증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관영 의원은 “특별교실 증축으로 우리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과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역시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 사업비 약 18억(특교 약 15억, 교특 3억)의 이번 특별교실 공사는 1,313.3㎡ 규모로 기존 특별교실 2실을 6실로 증축하기로 설계해 201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김종철,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국민의당, 전주 7)이 13일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북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347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자격, 협의회의 기능과 임기 등을 규정하고, 이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진성 기자

##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등 우려”

### 2018년 4월17일까지 최장 6개월 구속 상태로 있게 돼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운)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기소 때부터 6개월이다.

그간 박 전 대통령 1심 형사재판은 쟁점이 방대하고, 심리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

큼 지난하게 진행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1심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속 기간이 만기됨에 따른 예상이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롭게 청구했다. 첫 영장 발부 당시 혐의와 다른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을 경우 법원

은 직권으로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점,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 회유 등 증거 조작의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거리는 칼로세울 경기장에 혼자 남겨진 채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며 무죄 추정·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뉴스

제28회 정읍시 문화제

백제가요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

2017.10.20(금) ~ 10.22(일) 3일간  
정읍사공원 및 시내일원

주최 | 주관 정읍시 | 후원 | 정읍시문화재단

<p><b>10.19(목)</b>   18:00~21:00   정읍사공원 어린이 육구장</p> <p>전야제 “달빛가요 SHOW” 송대관, 문희옥, 오로라, 동이문, DOZ, 김아라, 진정아</p>	<p><b>10.20(금)</b>   16:30~18:00   정읍사공원 정읍사공원</p> <p>정읍사 거리 퍼레이드 공군군악대, 꽃마차, 퍼포먼스팀</p>
<p><b>10.20(금)</b>   18:00~22:00   정읍사공원 특설무대</p> <p>정읍사 열린음악회 홍진영, 박현빈, 오마이걸, 문연오르</p>	<p><b>10.21(토)</b>   16:00~18:00   정읍사공원 특설무대</p> <p>정읍사 K-POP 페스티벌 청소년 Rock Band 한미당전치 -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p>
<p><b>10.21(토)</b>   18:30~20:30   정읍사공원 특설무대</p> <p>정읍사 가요제 장윤정, 진 성, 솔 티, 이동준</p>	<p><b>10.22(일)</b>   19:00~21:00   정읍사공원 특설무대</p> <p>제회 정읍사 Maple star 오디션 울랄라세션, 배기성, 서재이</p>

\*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길기 행사 10. 21(토) 09:00~12:00 정읍사공원

| 2017년도 정읍시 정읍사문화제행사 보조금으로 제작